

새해 첫날 동해안 등대 오전 6시 개방

- 을사년 새해 맞이를 위해 기존 오전 9시에서 오전 6시로 개방 시간 조정 -

동해지방해양수산청(청장 이재영)은 2025년 을사년(乙巳年) 새해를 맞아 동해안을 찾는 방문객들이 1월 1일 새해 첫 일출을 감상할 수 있도록, 유인등대(묵호·주문진·속초) 개방시간을 기존 오전 9시에서 오전 6시로 앞당겨 개방한다고 밝혔다.

묵호등대는 1963년 최초점등 후, 2007년 등대 개량사업을 통해 현재와 같은 등탑과 등대해양문화공간을 갖추게 되었으며, 최근 등대트리도 점등하여 함께 운영 중이다.

주문진등대는 1918년 설치되어 올해로 106년째 운영 중인 동해안의 가장 오래된 등대이자 문화재적 가치가 매우 높아 국가 문화유산 지정을 위해 심사를 앞두고 있다.

속초등대는 1957년 처음 불을 밝힌 등대로, ‘속초8경’중 제1경에 지정되었으며, 등대 주변 영금정과 함께 대표적인 새해 일출 명소이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향후 해맞이를 놓친 국민들도 을사년(乙巳年) 새해 해돋이를 감상할 수 있도록 일출 동영상을 촬영하여 누리집(<https://donghae.mof.go.kr>)과 SNS(<https://facebook.com/donghaecheong>)에 게시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새해 해맞이를 위해 평소보다 많은 관람객의 방문이 예상되는 만큼 등대 시설물을 사전 점검하고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질서유지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국민들이 동해안 등대해양문화 공간에서 해돋이와 함께 새해 희망을 다짐하기를 기대하며, 안전사고 예방에도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항행정보시설과	책임자	과 장	김동식 (033-520-6271)
		담당자	주무관	변창훈 (033-520-6275)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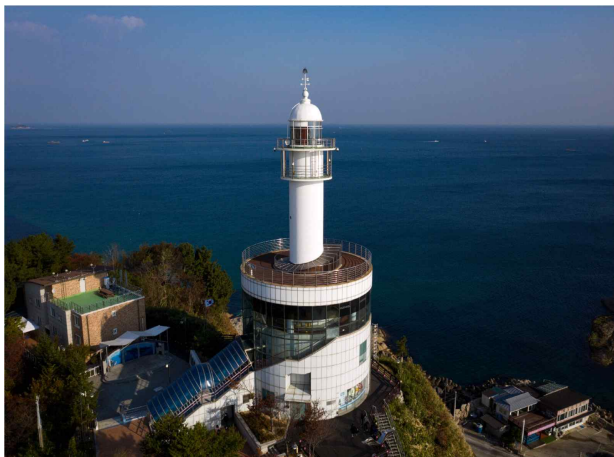
관련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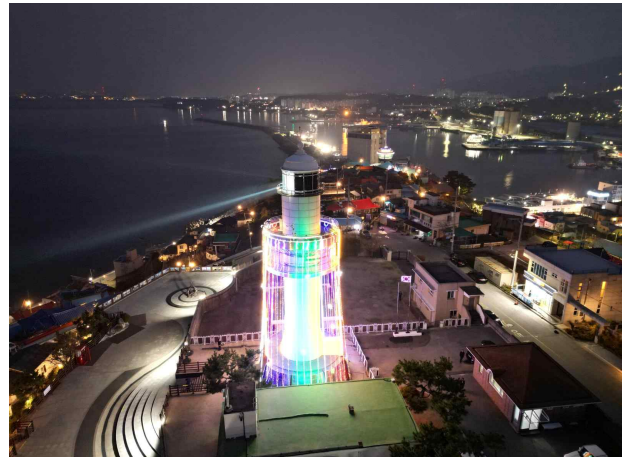
목호등대



주문진등대



속초등대



목호등대 등대트리 점등